

연중 제31주일

제1독서 : 지예 11,22-12,2  
제2독서 : 2데살 1,11-2, 2  
복 음 : 루가 19,1-10

# 순정이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려 온 것이다.”  
(루가 19, 10)

## 강론

### 하느님을 만나려면

김기수 신부 / 신동 천주교회

안토니 블룸 대주교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남자가 찾아와 하느님을 만나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하더군요. 주교님은 하느님을 만나려면 그분과 같은 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복음서에서 특별히 감동되는 귀절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주교님은 그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 남자가 “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의 귀절입니다”라고 대답하니 주교님은 또 물어 보기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면에서 당신은 그중 누구인지 스스로 물어 보십시오.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그 여인이 낚아채고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편에서 계십니까? 혹은 간음한 여인입니까? 혹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즉시 물러나간 노인들 중 하나이십니까? 아니면 늦게까지 남아 있는 청년들 중의 하나이십니까?”하고 말씀하시니 그는 몇 분 동안 홀로 곰곰히 생각하고 나서 “아니오 저는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홀로 남아서 그 여인을 돌로 쳤을 것입니다”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주교님은 이에 “당신은 하느님을 만나 뵈려면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부족하고 하느님의 마음과는 극히 거리가 멉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과오를 낚아채고 회개하여 하느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케오와 같이 주님을 만나려는 열정과 만남 후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린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 소리

### 살아도 못 살아

노태우 씨의 부정 축재, 참으로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재임기간 동안에 한 일이 겨우 제 살림을 늘리는 데만 힘쓴 셈이 아닌가!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준 우리네, 지금은 소위 ‘세계화(世界化)’ 시대라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야 할까! 어처구니 없는 노씨의 행태에 분노와 부끄러움이 뒤엉킨다.

‘죽음에는 편작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곧 천하의 명 의라도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함이니 죽음에 대하여 사람은 무력하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얻고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악착같이 챙긴다. 필요하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아내와 친구까지도 죽이면서.

연젠가 어떤 어머니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자식들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여겨 죽음을 택한 적이 있다. 이처럼 인간은 인격적인 것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 예로부터 바르게 살고자한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인격적인 죽음을 더 두려워했다. 그들은 살아있어도 죽은배나 다름없는 삶을 거부하고 육체적인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다.(그렇다고 자살 찬양론을 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잘 살기란 죽음보다 몇 배나 어려운 일이다.

죽음의 참뜻을 묵상하는 이 11월, 노씨의 비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시사해 준다. ㉠

### 순정이 산책



성서교실 69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 주셨습니다.”  
(창세 47, 13-31)

고대 근동 사회에서 빛을 갠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해야 하는 일은 당연한 법으로 되어 있다. 갠 능력 없이 없을 땐 몸의 자유를 팔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도 이 원칙을 고수했다. 다만 그들에게는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째가 되는 회년에 밭을 되돌려 받고, 노예의 처지에서 해방되는 특이한 제도를 병행해서 실행했다. 이 과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에집트인들을 파라오의 종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오분의 일 조세제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원을 밝히고 있다.

기근이 점점 심해져 가자 에집트 땅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돈을 있는 대로 가져와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 간다. 에집트 사람들은 돈이 다 떨어지자, 요셉에게 와서 돈 이외의 수단으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는다. 요셉은 가축을 가져오라고 한다. 에집트인들은 말과 소, 양과 나귀를 가져온다. 이 대목에서 말에 대한 성서의 첫 언급이 나온다. 말이 에집트에 전해진 것은 히소스 족의 침범이 있었던 기원전 1720~1560년 사이이다. 그 다음 해가 되자, 계속된 가뭄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된 에집트인들이 다시 양식을 구하러 온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농사지을 땅과 그들의 몸뚱이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몸과 땅을 다 내놓고, 파라오의 종이 되겠으니 먹을 양식과 밭에 뿌릴 씨앗을 달라고 청한다. 요셉은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 그들의 토지를 모두 사서, 파라오에게 넘기고, 그들을 파라오의 종으로 삼는다. 이것은 파라오의 신성과 절대권력을 상징하는 표현들이다. 단 여기에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사제들에 대한 규정이다. 사제들은 파라오에게서 토지를 직접 하사 받았고, 그의 녹을 먹고 살기 때문에 파라오에게 땅을 되팔 필요도, 땅의 소출세를 바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곡물의 소출세 이외에 다른 종류의 세금에 대해서는 사제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처럼 사제들의 땅을 제외하곤 에집트 전국의 땅이, 적어도 형식상 파라오에게 속해 있었다는 사실은 고대 근동의 문헌으로 입증된다.



기원전 15세기 테베의 무덤 벽화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제안한 내용을 어김없이 실천한다. 이로써 요셉은 칠 년간의 풍작과 연이은 칠 년간의 흉작이라는 국가적 이변 속에서도 파라오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면서 에집트 전체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어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야곱은 낯선 땅 에집트의 고센 지방에 튼튼하게 정착하여 많은 후손을 갖게 된다. 야곱은 죽음을 준비하는 이 마당에서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느님 백성의 장래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는 요셉을 불러 자기를 만드시 가나안에 묻어 달라고 신신 당부한다. 야곱은 요셉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에집트를 마다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는 것이다. 요셉의 약속을 다짐받기 위해 야곱은 그에게 “네 신의를 성실하게 지켜 네 손을 내 사타구니에 넣고 맹세하라”고 명한다. 요셉은 자신의 충실한 공직 수행으로 에집트에서 파라오와 백성들로부터 얻은 신망을 걸고, 생명의 근원지인 남성의 국부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 아브라함이 이사야의 신부감을 고르기 위해 자신의 충복을 파견할 때도 사타구니에 손을 얹어 맹세시킨 바 있었다. 이 경우 맹세를 어기는 사람은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된다고 믿었다.

(주)이삭온돌침대「피워스톤」  
수맥방지 및 치료용 건강돌침대  
(공업진흥청 전자파실험필, EMI)  
박천운(베드로) 임선재(테레사)  
전북대리점  
☎ (0652)75-9824, 77-6587  
호출기 012-687-8842  
휴대폰 011-651-7124

최첨단 부엌가구  
ENEX 전북종합전시장  
박영근(공사가)  
장정신(젼 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75-0524

전원미용실  
고정순(에스텔)  
관동로 명동사우나 옆  
☎ 83-0753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서정우·이혜경(글라라)  
북전주전화국←→법원 중안  
☎ 253-3232



교리상식

위령성월 ①

위령성월의 의의와 유래

11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연옥에서 정화중인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와 선행을 하는 달이다. 죽은 이들을 잊지 않고 그들이 하느님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 주는 이 신심은 가톨릭의 가장 큰 신심 중의 하나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며 단련 받는 영혼의 처지를 도와 주는 사랑의 행위이므로 교회에서는 특히 11월 한 달 동안 연후 영혼이 천상의 행복을 누리게 되도록 기도해 주고 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구약성서의 마카베오 후서이다. 기원전 163년 유다 민족의 지도자인 마카베오는 전쟁터에서 죽은 유대인들을 장사 지내면서 그들이 지은 죄가 용서될 수 있도록 애원하고 기도와 헌금을 바쳤다. 기원후 2세기부터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일반 신자들 가운데 보급되었으며 특히 이 관습은 로마 까따콤바(지하묘지) 안에 새겨진 많은 기도문, 즉 죽은 이들이 죄의 사함을 받아 천상 행복에 들게 해 달라는 내용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최초의 까따콤바는 1세기에 설치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치 않고 2세기 초부터 가족 묘지로 출발하였다가 3세기 경부터는 신자들의 공동 묘지로 사용되었다. 까따콤바의 벽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벽화들, 즉 초기 신자들의 종말론적 사상을 표현한 그림들이 그려졌는데 그 중심 주제는 하느님에 의한 구원, 천국에의 희망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구세, 내세의 신앙, 그리스도의 신성, 세례, 성체, 죽은 이를 위한 전구, 모든 성인들의 통공 등을 표현하였다.

교구소식

상설 고백소 설치

신자들의 고백성사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상설 고백소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때: 11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금요일    장소: 전동 성당  
시간: 오후 2시~5시까지(단 3월, 12월 판공시기는 제외)

※ 축! 견진: 11월12일(일) 오전 10시30분 나운동 성당

1. 사제 사목교서 연수 및 전체 모임: 11월9일(목) 오전10시 가톨릭센터 3층
2. 구역(반)장 연수: 11월7일(화) 오후2시 연지동 성당, 김·정지구  
11월8일(수) 오후2시 장수 성당, 임순남·무진장 지구
3. 천호 피정 안내: 11월11일~12일 주제-용서하듯이 용서하시고, 강사-김준수 신부, 문의 73-6600
4. 가톨릭 문우회 문학의 밤: 11월6일(월) 오후 6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5. 초등부 성탄 연수: 11월11일~12일 나바위 피정의 집
6. 안복진 신부 주소안내: 덕진구 진북동 동국해성APT 105 / 1301 ☎ 252-5440

\* 기억할 사제: 6일 김종택(요셉) 신부 5주기

\* 축! 영명: 10일(성례오) 박중충 신부님

요심이 (1157) 김병오



관리장 구함

1. 자격: 영세한 지 3년 이상, 남자, 대형면허소지자
2. 제출서류: ①이력서  
②면허증사본  
③본당신부님 추천서
3. 문의: 함열천주교회  
☎ 861-0065, 861-0165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 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주) 한국삼배전북총판

최고급 전통수의/Q마크획득원단제품 삼배양말/무좀예방,삼배이불

이경근(안토니오) 임경란(수산나)

서신동 성당 옆

☎ 76-9691~2

호출기 012-682-6631

덕신지업사

- 최신벽지 및 바닥재 마감재
- 정밀시공 · 전화문의 환영합니다.

원요안(요한)

서문숙(엘리사벳)

군산신 죽성동 29-9

☎(0654)42-3736, 445-3736

LG(금성)에어컨 총판

- 에어컨,항온습습기,공기정화기
- 온풍기,대형냉장고,중앙집중식냉·난방

원종삼(발리바) · 원승연(도밍고)

삼화광조 ☎(0652)251-0190~2

휴대폰 011-653-2346

김장 걱정 하세요? 3만원만 쓰세요!

정한 날 정한 시간, 댁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고맹지 배추, 고추 등 양질의 양념과 심지매품: · 완전 무농약 진정 순창 전통 고추장(오리농 무농약 참쌀+유기농 무농약 고추 10개월 이상 전통 할아리 숙성) · 100% 우리콩 된장,간장 · 무농약 한미 참쌀 계화미 \*우리쌀곡 파쇄분,사실분 연락주세요!

· 주문처: 순창 성당 영농조합 (0674)53-8040~1,52-1004  
가톨릭농민회 부설 동산매장 (0652)212-7442, FAX. (0674)53-0414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연중 제31주일입니다(11월은 위령 성월)

1. 기정 방문: 7일 오전 10시-아침리, 오후 2시-중노11, 12반  
8일 오후 2시-기린방 1, 2, 3반  
10일 오전 10시-남노 1반, 오후 2시-남노 3, 4반
2. 자모회 임원 개편  
회장-문선자(안젤라) 부회장-이선화(멜라니아)  
총무-노도화(바울라) 서기-서성자(테레사)  
세실리아회 임원 개편  
회장-진경숙(요안나) 부회장-문하영(스콜라스티카)  
총무-박은순(올리안나) 회계-김선자(안젤라)  
서기-윤은희(글라라) 수고하시겠습니다.
3. 특별기도 및 성체강목: 9일 저녁미사 후
4. 사제 사목교사 연수: 9일 전 10시 센터
5. 초등부 성탄 연수: 11-12월 나바위
6. 중·고 성지순례: 12일 여산 천호성지, 참가비-3,000원
7. 모임: ①울뜨레아(오늘, 공식미사 후)  
②부녀회(8일, 어머니미사 후)  
③반회장 모임(9일 전 10시30분)  
④세실리아회(10일, 저녁미사 후)  
⑤장우회(12일, 공식미사 후)
8. 축! 혼인: 오늘 12시, 신랑-김대중(스테파노) 군  
신부-이미나(올리안나) 양
9. 금주 청소: 23, 24반. 차주 청소: 중노 26, 27반

□ 지난주 봉헌금: 955,620원 □ 교무금: 1,137,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 11월은 위령성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미사와 기도 바칩니다.

1. 미사시간 변경: 5일(오늘)부터 저녁미사 7시30분→7시로
  2. 초등부 교리교사 성탄 연수: 11-12월, 나바위
  3. 사제 96년 사목교사 연수: 9일(목) 센터
  4. 모임: 성우회, 대견회-오늘 공식미사 후  
사목회-오늘 저녁미사 후  
구역분과회-7일(화) 오전 10시  
울뜨레아-7일(화) 저녁미사 후  
안나회, 자모회-9일(목) 오전 10시  
여성분과회-11일(토) 오전 10시  
요셉회-12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꾸리아-12일(다음주일) 오후 2시  
청년회-12일(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해설자 모임-12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금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이상은 부부  
봉헌-강영진 가족  
차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김현덕 부부  
봉헌-지해룡 가족  
성당 청소: 11월11일(토) 중거자의 모후Pr. 천주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642,500원 □ 교무금: 1,334,5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불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11월은 위령성월: 연령을 위해 기도하며 죽음을 묵상합니다.

1. 모임: ①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 - 오늘 공식미사 후  
②안나회-다음 주일
2. 특별강론: 김희태 신부님, 감사합니다.
3. 축! 혼인: 신랑-박종오(베드로), 신부-홍정희(헬레나)  
오늘 12시(센터 박진규 씨 5남)
4. 감사! : ①성전보수비 봉헌-김영신(20만원) 우경숙, 박귀철,  
익명(10만원) 강승용, 하태중, 하성운(5만원) 김남순(3만원)  
계-7실8만원. 누계-7백9천3천원 ②꽃봉헌-한영애(3만원)
5. 지속적인 성체조배: 9일(목) 저녁미사 후-금요일 미사 전까지
6. 성당 청소: 금주-모든 성인의 모후Pr.  
차주-성실하신 동정녀Pr.
7. 금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최경림 ②이석남  
봉헌-유민상 가정
8. 차주 전례: 해설-우경숙, 독서①김완식 ②김금자  
봉헌-강인기 가정

□ 지난주 봉헌금: 406,000원 □ 교무금: 235,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1. 금주 모임: 꾸리아-11월5일(일) 후 2시, 성당  
반장회-11월5일(일) 공식미사 후, 유아방  
사목회-11월7일(화) 후 8시30분, 사무실  
성심회-11월11일(수) 전 10시30분, 회합실  
울뜨레아-11월12일(목) 후 7시30분, 회합실
2. 차주 모임: 프란치스코 삼회-11월12일(일) 후 2시, 회합실
3. 소록도 방문 안내: 11월9일(목)  
· 출발장소-성당(시간: 6시50분 출발)  
· 준비물-목주, 물, 갈래, 미사도구, 레지오 수첩, 도시락, 간식, 식, 열, 깔개(자리)  
\* 소록도 나환자 교류를 위해 라면과 휴지 및 과자 등을 기증하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4. 축! 혼배: 11월 12일(일) 전 11시  
신랑-남일권(바로로) 신부-김성아
5. 미사 변경: 11월9일(목) 미사는 없습니다.
6. 빈첸시오: 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  
\* 뜻이 있으신 분은 많은 참여바랍니다.
7. 성가 연습: 매주 토요일 10시30분, 장소-성당  
\* 성가를 배우고 싶으신 분이나 관심있으신 분은 언제나 환영  
합니다.
8. 청소 안내: 금주-사랑하을 어머니  
차주-사랑의 샘

□ 지난주 봉헌금: 1,105,300원 □ 교무금: 1,103,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주 환

◎ 11월은 위령성월: 선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금주: 레지오 마리아 야외 단원교육  
장소-남양성지, 7시30분 출발
2. 예루살렘회: 8일(전 11시)
3. 베엠타회: 8일(전 11시)
4. 돈보스코회: 8일(후 7시30분)
5. 다비드회: 11일(후 3시)
6. 유아세례: 11일(후 3시)
7. 상설 고백소 설치: 11월7일부터 매주 화요일~금요일  
시간: 오후 2시~5시까지(단, 3월, 12월 관공시기는 제외)
8. 글로리아 성가대 임원개편: 단장-김미선(엘리사벳) 부단장-  
장정희(베레안나) 총무-김대로(바로로) 회계-김은희(첼마)  
부회장-김은희(첼마)
9. 청년 연합회 임원개편: 회장-이상길(타데오)  
부회장-김은희(첼마)
10. 감사헌금: 일백육만원(익명) 감사합니다.
11. 차주: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③재속글라라 형제회(후 3시)  
④사목회(후 8시)

□ 지난주 봉헌금: 2,072,24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감삼근

◎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네 갑질을 갚아주겠습니다”  
(루카 19,8).

- ◎ 꾸리아 임원개편: ①평화의 여왕Cu.: 단장-강상근(미카엘)  
부단장-신행자(로사) 서기-조정순(요셉이나) 회계-이정기  
(요한)
- ◎ 천주의 모후Cu.: 단장-김정곤(스테파노) 부단장-박혜정  
(수산나) 서기-김용현(진길아우구스티노) 회계-공양자(사바  
나) 구원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 임원님을 수고바랍니다.
1. 구역 반 회합 연수: 7일 전 10:30, 전일자와 위는 교우 보고
2. 전국 교도소 사목 세미나: ①7일~9일 본당 신부님 참석  
②미사안내-7일 새벽 5시30분
3. 쉬는 교우 방문: 9일 전 9시 2구역 3-6반, 10일 전 9시 3구역  
1-6반. 4. 초등부 교리교사 성탄연수: 11월~12월, 나바위.
5. 이발 무료 봉사: 12월 전 9시~12시, 사무실 뒷편. 6. 회오  
: 평화의 여왕Cu. - 오늘 후 2:30. 성지회-오늘 공식미사 후.  
부녀회, 제대회-8일 어머니미사 후. 천주의 모후Cu. - 12월 후  
2:30. 성체회-12일 공식미사 후. 7. 구역반장 임명: 8구역-  
2반장-김민정(요안나) 11구역 1반(주공401-404) 반장-오  
영자(아네스) 11구역 2반(주공 405-407) 반장-김영옥(말가  
릿다) 12구역 1반(주공 501-503) 반장-심경자(스텔라) 12구  
역 2반(주공 504-507) 반장-백형복(테레사) 수고하시겠습  
니다. 8. 신축기금 마련 사전판매: 백두산, 금강산, 바다칸 등  
-성당 내 입구에 건본 전시

□ 지난주 봉헌금: 1,362,310원 □ 교무금: 2,356,000원

상설 고백소 설치: 11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금요일, 전동 성당(단 3월, 12월 관공시기는 제외)